

# “불교 목적은 함께 성불하는 보살사상”



**아프니까, 더 살만한 세상**  
현해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5천원

“부처님의 법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이 세상에 있어서 항상 존재하여/ 움직이지 않는 사실을/ 불타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깨침을/ 교묘한 방법으로 설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계승이다. 한문경전에는 ‘시법(是法)이 주법위(住法位)하여 세간상(世間相)이 상주(常住)니라. 어도량지(於道場知)하사 도사방편설(導師方便說)이라’로 돼 있다.

<법화경>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현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월정사 회주·사진)은 이 구절을 ‘이 법이 법위에 머물러서 세간의 모습이 항상 머무름이니 부처님께서는 도량을 다 이어서 방편으로 설하신다’로 번역했다.

이 책은 <법화경>의 내용으로 포교 활동을 해온 현해 스님의 법문을 모은 법문집이다. 내용들은 방송서 대담한 것들과 언론에 기사화된 원고를 모았다. 이 책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처님 말씀을 대중이 접하기 쉽도록 풀이한 것이 특징이다. 대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스님은 자신이 살아온 삶도 예로 들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스님이 걸어오신 삶의 궤적과 불교관이 곳곳에 투영된다.

스님은 ‘아프니까 더 살만하다’는 책 제목처럼 고통과 힘든 중생세계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더 값진 것이고, 우리의 속에 감춰진 부처의 씨앗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분별의 연속인 현대인의 삶에, 스님 법문은 단아한 연꽃 같다. 또한 본서에 수록된 법문 중 녹음 상태가 좋은 것을 선별해 그 일부를 CD에 담았다. 따라서 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현장감 있게 들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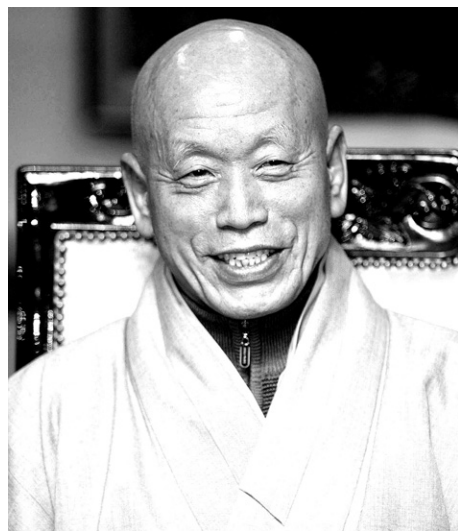
“깨침이 아무리 있어도 실천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가 부처의 세상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어요?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할 때 깨침이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말로만 하면 깨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법문을 들었으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현해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일상생활서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의 부처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책에서 전한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독실한 크리스천 청년 김창석, 이것이 바로 현해 스님의 과거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보다는 교회 확장에 힘쓰는 운영진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회의를 느꼈다.

종교와 인생문제로 고민하던 1958년 가을, “오대산에 가면 대학생들을 모아 놓고 공부



**<법화경> 관련 법문 담은 CD도 수록  
‘상불경보살품’…현대에 필요한 가르침**

를 가르치는 도인이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무작정 길을 나섰다. 이후, 당시로서는 늦은 나이에 출가해 50여 년의 수행생활 중 절반은 선승의 길로 또 절반은 불교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갖고 원력을 세우 역경 사업과 후학 양성, 포교 활동 등 불교계 전반에 이룩한 업적이 많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종단의 큰어른 스님이다. 하지만 스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원로는 종단의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른감이 못 되거든. 나는 머리로 깨친 것을 ‘도’라고 보지 않

습니다. 실천행이 없으면 뭐해요? 깨친 것과 터득한 것(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것이 도(道)거든요.”

종단의 어른이라는 이름에 책임감을 느끼며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고 실천하는 스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울림을 준다.

현해스님이 법화경 경구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상불경보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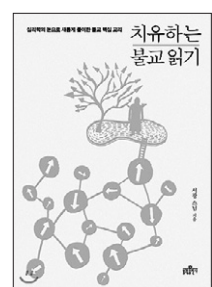
“나는 이것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끝없는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서 진짜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묻어버리고 돈과 탐욕과 권력을 쫓다 보니 세상이 갈등과 고통 속의 지옥처럼 변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끝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상불경보살품’이야말로 현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법단에 있는 불상도 아니고, 2500년 전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만 부처인 것은 아니다. 부처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각자 다 지니고 있다. ‘상불경보살’처럼 우리도 옆 사람을 존중하고 부처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현해 스님은 강조한다. 불교의 목적은 모두가 다 함께 성불하는 보살사상에 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보살사상이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보듬어주며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모신다면 이 땅이 바로 정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김주일 기자 kimj127@hyunbul.com

## 마음공부... 이론과 실천 하나 되는 것

### 치유하는 불교읽기

서광 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1만4천원



불교 공부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부와는 달리 이론과 실천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가 돼 가는 것이다.

마음공부도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마음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마음공부를 평가하는 기준은 과연 어떠한가?

마음공부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면 답이 나온다. 지식만 습득하는 일반공부와 달리 마음공부는 이론과 실천이 하나가 되는 공부라는 게 서광 스님의 지론이다.

따라서 이 책은 머리로 이해하거나 몸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가슴을 터치해 감동을 유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감동을 유발하면 그 감동이 우리에게서 선한 심리 상태를 촉진하고 유지하도록 도우며,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으로 실천해 공극에는 삶을 바꾸는 것이 바로 치유하는 불교 읽기의 최종 목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성제, 팔정도, 삼독, 십이연기 등 불교 핵심 교리를 따로따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들이 서로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교리의 진정한 뜻에 다가서는 데 장애를 겪기도 했다.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편화된 불교 교리를 ‘치유’라는 줄로 꿰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삼십칠조도품이라는 수행 체계가 사성제의 각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팔정도는 왜 수행으로 보기 힘든 것인지, 왜 바라밀 수행은 보시바라 밀로 수렴되는지, 왜 본격적인 수행에 앞서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우선 다스려야 하는지 등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풀이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불교 교리들이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저자는 치유를 위해서는 불교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도 역설한다. 예를 들어 <금강경> 한 구절인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의 일반적 풀이인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어렵고 추상적이어서 마음 치유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터치 앤 고(Touch and Go)’ 기법으로 이해하면 마음 치유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각각의 감각 대상과 접촉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감각과 감정 및 그 감각과 감정에 개입하는 자의의식의 작용을 알아차리고(터치), 접촉 순간의 경향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인식하여 내려놓으면(고) 착각에서 오는 고통(뜻) 다가 말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감동적 삶이 불교 치유의 목표  
마음 치유는 긍정적 시각서 비롯**

이것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담겨 있는 치유 메시지이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 세계는 대개 천상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바로 천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데 천상도의 마음 상태에서는 건장, 부, 아름다움, 명상 상태 등이 극단적으로 순수하게 유지된다. 그러한 상태를 ‘나’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자아의식이 여전히 강하게 살아남아 있으며, 항상 쾌락 중심적이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란 없으므로 천상도와의 인연이 다하는 때가 올 것이고, 인연이 끝난 후엔 지옥도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천상도의 마음 상태에 들어서려는 경험은 그리 반가워할 게 못 된다.

저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상태는 인간도의 마음 상태다. 저자가 진행한 한 워크숍에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인간도의 마음 상태에 있는 참가자들이 가장 많은 자격증과 학위를 지니고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인간도의 마음 상태가 높은 이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 청소는 자기 마음 닦는 일종의 수행

### 스님의 청소법

마스노 순모 지음 | 정경출판 | 1만3천원



스님에게 있어 청소는 단순히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기 위한’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

사람은 태어났지만 한 점 흠도 없는 거울 같은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데, 살아가는 동안 마음속에 티끌과 먼지가 쌓여간다. 이러한 티끌과 먼지를 털어내고, 본래의 거울 같은 마음으로 되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청소다.

정소할 때 그날의 근심거리나 고민을 모두 잊고, 눈앞의 더러움을 털어내며 쓰레기를 치우는 데 집중하면 그 시간은 분명 큰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원

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지금 나는 집착이나 미움, 질투 등으로 흐려진 마음을 닦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귀찮은 청소시간이 바뀔 것이고, 정돈된 공간에서 지내다보면 마음의 흐림 역시 생기기 어려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내려놓고 집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소하여 심플한 상태가 되면, 두터운 구름에 덮여 보이지 않았던 ‘본래의 자신’과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자유로운 경지에 접어들고,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살아가는 온화한 날들이 시작된다.

또한 맑은 환경에서 맑은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작은 자연의 변화나 사소한 일에도 감동하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이 늘어간다.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감사의 시간이야말로 매일을 풍요롭게 하고,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다. 김주일 기자

## 윌리엄스가 들려주는 사후세계

### 죽음 이후의 또다른 삶

리사 윌리엄스 지음 | 자이리라 옮김  
정신세계사 펴냄 | 1만5천원



죽음의 순간엔 고통스러울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심지어 사고로 인해 급작스레 죽음을 맞는 경우라도, 영혼은 미리 상황을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치명적 외상을 입기 직전에 몸 밖으로 벗어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리고 인도령들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늘 준비 하고 있다. 이처럼 사후세계로 건너가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크게 안심할 수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일 수 있다.

죽음 이후의 순간에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고 고집 부리며 소위 ‘유령’이 되길 자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커다란 해방

감과 함께 눈부시게 빛나는 베일을 통과한 느낌을 받게 된다. 그리고 곧 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구 등)을 만나고, 각자에게 걸맞은 치유와 공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사후의 여정을 거치는 영혼들은 남은 가족들을 보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사별의 슬픔을 잘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종종 다시 찾아와서 나름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곤 한다. 또한 자신의 사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은 영혼으로서도 지상과의 인연을 끊는 데 중요한 공부거리가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방문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고, 영혼은 자연스럽게 사후세계의 치유 과정과 다음 환생 준비에 집중하게 된다.

이 책은 TV 라이프쇼의 즉석 상담을 통해 전 세계적 명성을 얻은 신세대 스타 영매 리사 윌리엄스가 들려주는 사후세계 이야기다.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순간부터 다음번 환생까지 겪는 여정을 통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와 함께 인생을 함부로 살았던 안 될 이유도 깨닫는다. 김주일 기자

## 범음범패 학인 모집

- ◆ 실용의식 : ① 천수경  
② 상단, 각단예불  
③ 천도, 49제 모든의식
- ◆ 작 법 무 : ① 천수바라  
② 화의재바라  
③ 오공양직법 등
- ◆ 교육과정 : 6개월
-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 개강일시 : 2012년 12월 3일 개강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578  
대무량사 총무원 (불교회관)
- ◆ 문의처 : 010-5065-5690,  
010-4746-6581, 011-887-4591

(사) 한국미륵불교 부설  
**불교대학 범패원**

## 사찰화재보험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①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②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③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④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⑤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